

조그마한 '한옥', 종교 공간에서 예술 공간으로

27년전 쯤이다. 어머니는 어느날 아들을 불러 "이제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 불러라"고 했다. 스님들은 출가할 때 세속의 연을 끊고 떠난다. 부모, 형제, 자매와의 인연도 훌훌 털고 나신다. 스무살을 넘긴 아들은 매일같이 절에 다니던 어머니의 열성을 알았

장(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인 이상필 관장이 어머니인, 법성 스님의 협조를 받아 태고종 '법연정사' 대웅전 옆에 자리한 요사채 건물을 전시공간으로 꾸렸다. 종교적 공간으로만 남겨놓지 말고 지역민들이 편하게 찾는 장소. 그러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이 교수의 제안을 스님

동신대 문화박물관 이상필 관장과 어머니 법성스님 소태동 '법연정사'에 문화 공간 '한옥' 만들어

던 탓에 답답하게 받아들였다.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라고 한 마디 툭 던졌을 뿐이다. 더 가까워서, 자주 보고 싶은 혈육의 정은 어쩔 수 없었을까. 아들은 어머니가 있는 절에 조그만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이 찾아와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는 그런 장소. '소통'의 공간을 만들자고 했다. 나이들어 다리가 불편해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최근 광주시 동구 소태동 태봉마을에 문을 연 문화공간 '한옥'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작가이면서, 동신대 문화박물관

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전시실이라고 해야 조그만 한옥 형태의 방 2칸짜리를 바꾼 게 전부지만 여느 갤러리 못지 않은 분위기가 풍긴다. 외관이나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한옥 분위기는 고스란히 남겨놓고 작가들의 작품으로 미묘한 벽면을 채웠다. 첫 개관 기념전 참여자들도 지역 미술계에서 창작 역량을 선보여온 작가들이다. 제 9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로 '숨, 숨, 숨, 그리고 집'이라는 작품을 전시,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비밀밥'팀의 이매리씨의 작품을 비롯, 무각사에 소금으로 만든 '기억자우기' 작품을 내놓았던 김주연씨도 참



법연정사 법성스님과 이상필 동신대 문화박물관장이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한옥'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매리·김주연 참여 '스토리' 주제 개관 기념전 생활공예·대담·포럼 등 장소로 활용

여했다. 이외 박선주·정예금·채종기씨도 작품을 전시, '한옥' 개관을 축하했다. 단순한 전시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필 관장은 전시 뿐 아니라, 작가와의 대담·포럼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생활공예, 녹차만들기 등 지역민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변화시켜보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연정사' 외에도 광주·나주 지역 몇 곳의 사찰을 찾아 비슷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도 꺼내놓았다. 이상필 관장은 "알찬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문화 공간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관 기념전은 '스토리'를 주제로 다음달 31일까지 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성스님과 이상필 교수.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환경 파괴 메시지... 전환점은

김혜철 조각전, 내일까지 은암미술관

대통령대령 메달이 있는 인간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하다. 급격한 산업화의 역습을 상징하는 듯 차가운 강철 막대는 인간을 정조준해 달려든다. 김혜철씨가 오는 14일까지 광주시 동구 은암미술관에서 여는 조각전은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번 전시에는 '전환점'(turning point)이라는 주제로 환경 파괴에 따른 생존 범위의 축소에 초점을 맞춘 실제 인체 크기의 대형 조각 작품과 소품 등 8점이 전시된다. 첫 개인전을 여는 젊은 작가의 참신함을 엿볼 수 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음울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희망을 찾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할 '전환점'임을 알리려는 작



'Return' 가의 의도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씨는 호남대를 거쳐 광주시 미술대전 최우수상, 전남도 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받았다. 문의 062-231-5299.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책만사 '올해의 책'에 '유럽문화사'

출판인 모임인 '책만사'(책을 만드는 사람들)는 '2012 올해의 책' 대상에 도널드 서순의 '유럽문화사' 1-5권을 선정했다.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김윤식의 '내가 읽고 만난 일본', 도널드 H. 메도즈 등의 '성장의 한계', 아이작 맥피 등의 '사이언스 캠프' 시리즈가 뽑혔다. 문학·비소설·예술 분야에서는 박완서의 '세상에 예쁜 것'과 미야베 미유키의 '안주'가 뽑혔다. 그러나 '올해의 베스트셀러'에서는 수상작이 나오지 않았다. 책만사는 출판문화 연구와 교류를 위해 48개 출판사 대표가 19년째 활동 중인 모임으로 해마다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상작이 나오지 않았다. 책만사는 출판문화 연구와 교류를 위해 48개 출판사 대표가 19년째 활동 중인 모임으로 해마다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뷔시의 밤'

박명숙 피아노독주회, 15일 금호아트홀

박명숙 피아노독주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작곡가 드뷔시(1862~1918)의 곡들로만 꾸렸다. 연주 레퍼토리는 '안개', '불꽃놀이' 등으로 구성된 '전주곡 제2권', '일새로 흐르는 종소리', '금빛 물고기' '황폐한 사원에 걸린 달'로 구성된 '영상 2집', 프랑스 화가 와토의 명화 '키테라 섬에의 순례'에서 착상한 '기쁨의 섬'이다. 서울대와 예쁜 국립음대, 쾰른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박씨는 귀국후 슈베르트 연가곡 전곡 연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남대·순천대 강사를 거쳐 현재 성신여대 대학원에 출강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서 만나는 '유럽 도시인'

장 마크 카라치 사진전 18일까지 광주극장서

광주프랑스문화원은 오는 18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장 마크 카라치(Jean-Marc Carracci) '유럽 도시인' 사진전을 개최한다. 장 마크 카라치(1958~)는 튀니지 출생으로 독학을 통해 사진을 시작했으며 제17연대 낙하산부대의 공식 사진사로 활동하면서 사진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사회적 개체로서의 인간에 초점을 둔 작업을 해온 작가로 불리는 그의 '유럽 도시인'은 2007년 여름부터 2010년 여름까지 3년간 촬영한 유럽 수도 31개 시리즈로 구성돼 있다. 유럽을 배경으로 인간의 존재를 다룬 이번 전시회는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불가리아, 독일, 영국, 중국에서도 열렸었다. 20일부터는 광주프랑스



문화원으로 옮겨 전시회가 열린다. 한편 전시회 기간 중 광주극장에서는 줄리에 비노쉬 주연의 '엘르', 여자수도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사랑의 침묵', 음악 다큐 '서칭 포 슈가맨' 등 다양한 유럽영화를 상영중이다. 문의 광주극장 062-224-5858, 광주프랑스문화원 062-527-2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통의 세상으로 바꿉니다

기독교 교단협의회 13~14일 '광주시복음화대성회'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대표회장 윤세관 목사)는 13일부터 이틀간 영주체육관에서 '제 25회 광주시복음화대성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광주지역 1500개 교회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교회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예정이다. 첫날인 13일에는 수능을 끝낸 수험생과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찬양 집회와 설교가 진행되며 둘째날에는 '거듭남과 성결', '소통과 화해', '생명과 나눔'을 주제로 박덕기 송정중앙교회 목사, 최화후 광주영림교회 목사 등이 설교하는 연합 예배가 열린다. 특히 행사 기간 참가자 1만명이 1만원씩 헌금,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1만 만세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세관 목사는 "경제 발전으로 야기된 문제를 반성하고 세상의 희망과 빛이 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